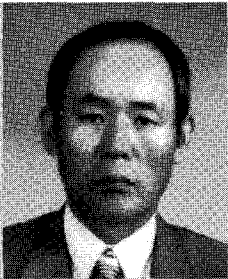


## 고품질 · 대고객 신뢰의 신영화학

### 경기도 김포 공장 이전 계기로 도약다져



윤승열  
신영화학 대표이사

그라비아 잉크는 연포장 가공을 하는 업체에 잉크를 공급하고 연포장 가공 업체들은 식품업체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식품 및 제과 업체의 경영 상황에 따라 연포장 가공 및 잉크 업체는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포장산업의 현실이다.

국내 잉크업계는 불안정한 달러 환율의 불안정 및 원가 상승과는 관계없는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잉크 업체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시키려는 듯 부문별하게 팽배하고 있는 잉크 업체들의 난립은 업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잉크 업계는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 거래선에 대해 판매 제한이 필요함을 끊임없이 역설해왔지만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여전히 잔존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잉크업계의 혼란속에서도 공생공존의 신념과 품질우선주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신영화학(대표 윤승열)을 찾았다.

1960년대 중반 국내 최초의 그라비아 잉크 업체인 세기잉크가 집안 친척에 의해 설립·운영되자 윤승열 사장은 자연스럽게 잉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기술 개발이 무궁무진한 분야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화학과를 전공하고 있던 때라 더욱 관심이 간 것 같습니다. 대학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유평’이라는 잉크 업체



▲ 경기도 김포로 공장을 이전한 신영화학

를 형님과 같이 운영하게 됐 습니다.”

이후 윤 사장은 친구와 함께 1979년 9월 그라비아 잉크업 체인 (주)유일화학을 설립, 17년동안 재직하던 중 1996년 회사를 인수해 사명을 신 영화학으로 변경, 운영하게 됐다.

### 신뢰 경영으로 위기 극복

지난 1997년 윤승열 사장은 신영화학을 인수한지 1년 만에 IMF를 맞아 많은 부도를 맞게 된다.

회사의 존폐의 기로에서 신영화학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윤 사장. 그는 부도 당시 원료를 납품했던 채권자들이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하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회사의 존폐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간에 쌓아두었던 신뢰가 아니었겠냐”고 밝혔다.

“고객을 상대로 믿음을 주는 것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는 윤승열 사장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신영화학은 대고객을 상대로 고객 신뢰를 확보해 가고 있다.

신영화학은 지난 6월 말 좁고 열악했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및 영업을 확충해 제2의 도약기의 맞겠다고 선언으로 공장과 사무실을 이전, 현재 경기도 김포에 자리잡게 되었다.

부천 공장의 경우 좁은 장소에서 제조를 하다보니 때때로 소방법에 저촉돼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는 윤승열 사장. 그는 “좁고

# Shin Young

열악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김포로 현장을 신축·이전하면서 무엇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의 편안한 직장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영화학은 12명의 직원들이 생산 및 개발, 영업, 관리 업무로 배분, 가족같은 분위기속에 신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승열 사장은 직원 전체가 함께 잘살수 있는 경영 방침을 추구한다. 직원 복리후생에 있

어서도 현재의 위치에서 최고의 대우로 직원을 배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윤 사장은 평소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회사 생활을 강조하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받으며 함께 신영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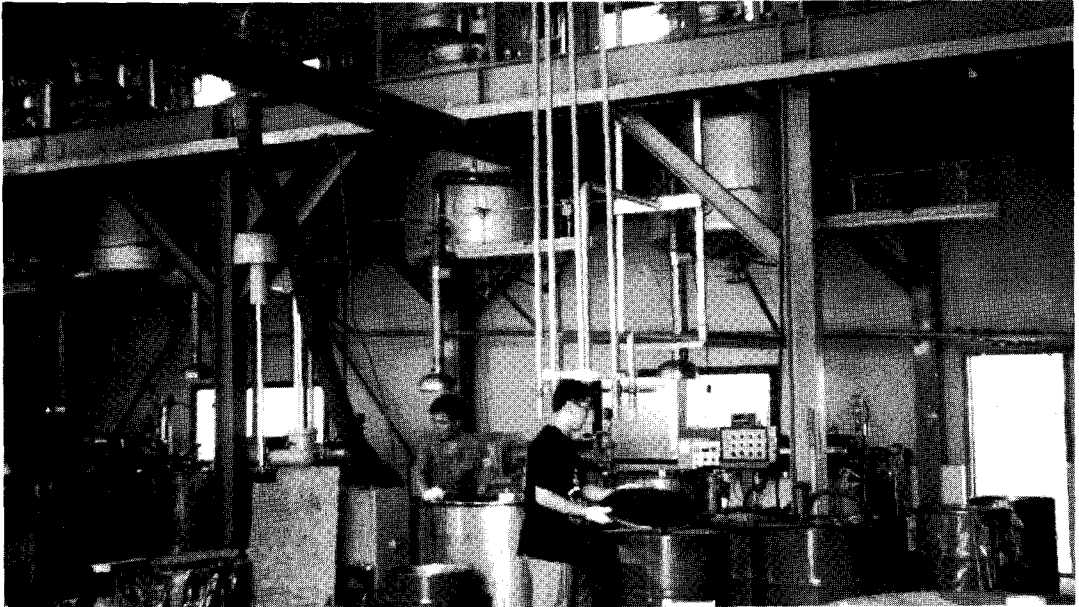
## 알콜 타입 잉크로 품질개선

김포 이전을 계기로 캐틀과 다이노밀을 각각 1대씩 추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영화학은 OPP, NYLON, PET의 수축 잉크 및 라벨용 잉크와 같은 10여 종류 잉크를 생산, 판매해 매년 10% 내외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라벨 잉크의 경우에는 라벨 업체 전체의 2/3 가량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35~6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신영화학은 PVC 필름 규제 이후 대체 필름으로 시도되고 있는 OPS 원단의 애로사항(후가공)을



▲ 신영화학 생산제품인 그라비아 잉크



▲ 작업중인 신영화학 공장 설비

개선하기 위해 알콜 TYPE의 잉크 및 내열, 내광 잉크개발에 주력해 품질을 개선하고 제품의 장점을 살려 최적의 물성과 최대의 인쇄효과를 갖출 수 있도록 품질 차별화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잉크업계는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난립하여 원재료의 상승 및 모든 비용이 상승함에도 제품값을 내리는 모순된 일이 많이 있어 큰 걱정입니다. 공존공생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조해 나가길 바랍니다.”

윤승열 사장은 “그라비아 잉크 업체의 대형화 형태인 일본과 다르게 국내 잉크업체들은 무허가로 난립돼 품질과 가격을 모두 절하시키고 있다”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도의 틀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협회 및 정부 차원에서 제조시설의 허가와 환경 시설의 보유 없이 업체를 운영하는 불법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랐다.

앞으로 신영화학은 매년 매출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기능성 잉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 클레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고품질과 친환경 제품으로 업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윤승열 사장이 이끄는 신영화학이 경기도 김포 이전을 계기도 가일층 도약하길 기대해 본다. [ko]

박초혜 기자